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5.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1-9)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183장

대표기도 / (1부) 전갑영 집사 (2부) 이상혁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마가복음 7:31~37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에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 전종남 목사

(Grant Us the Grace of Ephphatha!)

찬 송 / 540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546장, 384장 기 도 / 정충호 안수집사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30~40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 전종남 목사
(God Who Prepares Something Better for Us.)

■ 저녁 7시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50장, 212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2:8~15

말 씀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 전종남 목사
(A Godly Life That Pleases God)

■ 주일~금 새벽 5시

이사야 강해 / 전종남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윤결태 장로	최승태 안수집사

예배 위원

2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이대기 박선진 남정옥
헌금	김신영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이영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상영(박용분) 김춘예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12월 윤성태(강현주) 이상혁(송미숙) 홍우표(윤명란) 무명1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상영(박용분) 김선정 김순천(연윤희) 박삼강자가정 심상현 유경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12월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선희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홍우표(윤명란) 무명2
선교헌금	박용분 심상현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3남-25년
구제헌금	김호열(김도형) 7구역
교육헌금	김상영 김순천(연윤희) 김춘자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윤태오 이상혁(송미숙)
구역•부서	유초-중교

지난 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1.25.)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막7:24~30)

전 종 남 목사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과 질병, 영적인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 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24절).

예수님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 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함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형편과 아픔 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잠시 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예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차별 없이 고쳐주십니다(25-26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마15:22) 곧 메시아로 믿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인종, 민족, 성별, 신분의 장벽을 넘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예수님은 부스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27-28절).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아래 개들도 부스리기를 먹나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마15:28)라고 칭찬하시며, 즉시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 여인의 딸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간구 합시다. “주님. 부스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에 갈급한 것 같이(시42:1),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 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 니다. 아멘.